



OPP 및 CPP 필름 시장 동향

Market Trend of OPP&CPP Film

1. OPP 필름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OPP 필름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율을 보인 OPP 필름 시장은 지난 해 역시 환율하락으로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어 전략품목을 제외하고 일반 제품의 경우 내수로 집중되고 있어 공급과잉은 계속됐다.

또한 시장에서 원가절감을 목적으로 OPP 필름 가격 다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동일한 가동율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은 저하되고 OPP 필름 생산업체는 이중고로 고정비 압박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터 중국 수입필름의 증치세 감소 움직임이 예상되어 내수 OPP 필름의 수급이 다소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OPP 필름 생산업체의 수급 현황을 살펴본다.

현재 협회에 가입돼 있는 OPP 필름 생산업체는 대림산업(주), (주)삼영화학공업, 울촌화학

(주), 자강산업(주), (주)필맥스, (주)화승인더스트리 등 6개사이다.

대림산업(주)은 1996년 1호기, 그 다음 해에 2호기 상업생산을 시작으로 OPP 필름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중 포장용 18%, 인쇄용 15%, 기타 67%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 2개 라인 설비에서 24,000톤의 생산능력 가운데 7,000톤을 수출하고 내수 15,000톤을 공급했던 대림산업은 지난 해 2개의 라인 설비에서 25,000톤의 생산 능력으로 수출 7,000톤, 내수 14,000톤을 공급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OPP 필름 가격이 다운되고 내수 경쟁이 심화되어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수치로 판매가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삼영화학공업(주)는 OPP, CPP 필름을 생산하고 있으며 OPP 필름 용도별 비율을 살펴보면 인쇄용 30%, 섬유용 20%, LAMI용 10%, 테이프용 20%, 기타 20%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 4개 라인 설비에서 30,000톤의 생산능력 중 4,000톤을 수출하고 13,000톤을 내수

[표 1] OPP 필름 (단위 공급량: 톤/년)

업체명	라인수	생산능력	공급량	
			수출	내수
대림산업(주)	2	25,000	7,000	14,000
삼영화학공업(주)	4	32,000	5,000	15,000
울촌화학(주)	3	24,000	2,400	20,000
자강산업(주)	1	8,400	600	7,800
(주)필맥스	3	20,100	6,000	14,000
(주)화승인더스트리	3	30,000	12,800	12,000

공급했던 삼영은 지난 해 4개 라인에서 32,000톤의 생산 능력 중 수출 5,000톤, 내수 15,000톤을 공급했다.

삼영의 경우 생산능력에 비해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한 이유는 4개의 라인 설비를 모두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삼영화학공업 관계자는 “내수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가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중국의 증치세 문제로 인한 수입 필름 감소가 예상되어 국내 필름 판매가 조금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주 수요처인 농심에서 대부분 자가 소비하고 있는 울촌화학(주)의 OPP 필름은 인쇄용 30%, 테이프용 15%, 섬유봉투용 15%, 합지용 15%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 3개 라인설비에서 26,000톤의 생산 능력 가운데 3,600톤을 수출하고 내수 22,400톤을 공급했던 울촌화학은 지난 해 3개의 라인에서 24,000톤 생산 능력 중 수출 2,400톤, 내수 20,000톤을 공급했다.

울촌화학 관계자는 “가공식품의 위해성 논란 등으로 OPP 필름 내수 수요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며 “OPP업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원가절감 운동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신제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1년부터 OPP 필름을 생산하고 있는 자강산업(주)은 인쇄용 30%, 섬유포장용 20%, 종이합지용 15%, 테이프용 20%, 기타 15%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 1개 라인을 가동하여 8,400톤의 생산능력으로 수출 720톤, 내수 7,200톤을 공급했던 자강산업은 지난 해 생산능력은 2005년과 같은 가운데 600톤을 수출하고 7,800톤을 공급했다.

자강 관계자는 “3~4년째 이어지는 원자재 가격 강세로 OPP 필름 시장의 어려움은 증가되고 있다”며 “시장 여건의 악화로 인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제품에 반영하지 못해 수익성이 급락되어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자강은 필름 외 수익 사업을 모색 및 추진할 계획이다.

BOPP, CPP, SPP 필름 등을 생산하고 있는 (주)필맥스는 2005년 3개 라인을 보유하고 25,000톤의 생산 능력 중 수출 8,000톤, 내수 17,000톤을 공급했었다.

지난 해에는 3개 라인 설비에서 20,100톤의 생산 능력 가운데 6,000톤을 수출했고, 14,000톤을 공급했다.

(주)화승인더스트리는 OPP, PET 필름 등을 생산하고 있으면 OPP 필름은 식품포장 86%, 테이프용 3.2%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 3개 라인으로 26,000톤의 생산능력으로 수출 13,000톤 내수 13,000톤을 공급했던



특 징

(표 2) CPP 필름 (단위 공급량: 톤/년)

업체명	라인수	생산능력	공급량	
			수출	내수
삼민화학공업(주)	2	6,000	-	4,320
삼영화학공업(주)	1	3,500	120	3,000
(주)성일화학	3	6,000	180	4,100
(주)유상	4	12,000		12,000
울촌화학(주)	1	8,000	300	7,700
(주)필맥스	2	7,500	2,500	5,000

화승은 지난 해 3개 라인 설비에서 30,000톤의 생산능력 가운데 12,800톤을 수출했고 12,000톤을 내수 공급했다.

현재 (사)한국포장협회에 가입된 OPP 생산업체들의 최근 몇년간의 수급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업체들이 생산 능력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한 것으로 기록됐다.

이는 국내 시장이 장기 침체로 인해 물량 확보가 어려운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일 뿐 아니라 저가산 수입 필름이 이미 상당 부분 잠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터 중국 수입필름이 위엔화 절상 및 증치세율 조정, PP 레진 상승 등의 원가상승요인으로 수입량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OPP 필름 내수 수급 발란스가 다소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2. CPP 필름

2006년 CPP 필름 시장은 2004년 12월 울촌화학의 CPP 신규라인 시설에 이어 유상이 신규라인을 증설하면서 업체들의 공급과잉이 지속되어 과당 경쟁 및 가격 경쟁률이 심화됐다.

또한 OPP 필름 시장과 마찬가지로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 수요 및 매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어 2005년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올해 인성공업과 한서필름이 각 1대씩 CPP 라인을 증설하여 하반기에 정상 가동되면 공급량이 확대되어 업계간 과당경쟁으로 시장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CPP 필름 생산업체의 수급 현황을 살펴본다.

현재 (사)한국포장협회에 가입돼 있는 CPP 필름 생산업체는 삼민화학공업(주), 삼영화학공업(주), (주)성일화학, (주)유상, 울촌화학(주), (주)필맥스가 있다.

삼민화학공업(주)는 지난 해 2005년과 같은 2개의 라인 설비에 6,000톤의 생산능력으로 4,320톤의 내수를 공급했다.

삼민화학은 2005년에 이어 지난 해 역시 공급과잉으로 자사 생산능력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한 상태다.

삼영화학공업(주)는 2005년 1개 라인 설비에 5,000톤 캡파로 수출 200톤, 내수 4,000톤을 공급했으나 지난 해에는 1개 라인에서 3,500톤 생산능력으로 120톤을 수출했고 3,000톤을 내수 공급했다.

삼영의 관계자는 “인성공업, 한서필름의 신규라인이 하반기에 정상 가동되면 CPP 필름 시장의 공급과잉 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열접착성, 야채포장, 식빵 포장용 등의 CPP 필름을 생산하고 있는 (주)성일화학은 2005년 3개 라인으로 7,500톤의 캡파로 수출 548톤, 내수 4,420톤을 공급했다.

지난 해 성일은 3개 라인 설비로 6,000톤 생산 능력 가운데 180톤을 수출했고 4,100톤을 내수 공급했다.

성일은 “공급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후발업체들의 설비 증설로 더욱 치열한 가격 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 신규 시장 개척이 시급 하다”고 말했다.

2005년 3개 라인으로 생산능력 8,000톤, 수출 800톤, 내수 7,200톤을 공급했었던 (주)유상은 지난 해 한 개의 신규 라인을 가동한 4개 라인으로 12,000톤의 생산능력으로 전량 내수 공급하고 있다.

유상 관계자는 “앞으로 유상은 기능성 제품 강화 및 산업용 소재용 CPP 시장을 개발하여 회사 안정화를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5년 1개 라인으로 8,500톤의 캡파로 전량 내수 공급한 율촌화학(주)은 지난 해 1개 라인 설비로 8,000톤의 생산 능력 가운데 300톤을 수출했고, 7,700톤을 국내에 공급했다.

율촌화학(주)은 OPP 필름과 같이 CPP 필름도 주 수요처인 농심에서 대부분 자가 소비하고 있다.

(주)필맥스는 2005년 2개 라인으로 생산능력 7,800톤, 수출 2,400톤, 내수 5,400톤을 공급했었고, 지난 해에는 2개 라인 설비로 7,500톤의 생산능력으로 수출 2,500톤, 내수 5,000톤을 공급했다.

지난 해 말 산자부의 2007 신포장기술 개발사업 주관사로 선정된 필맥스는 향후 2년간 3억원을 지원받아 일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고품질, 고기능 레토르트 파우치를 국산화한다. 앞으로 필맥스는 즉석 식품류, 유지방 식품류 등 다양한 액

체류 포장류를 개발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컨소시엄 형태로 한화폴리드리머, KSP, 오투기식품, 남부대 등이 참여해 산학연 협력체제를 이룬다.

최근 시장이 캔에서 레토르트 파우치로 전환되는 추세로 국내 기업들은 CPP 필름 시장이 OPP 필름 시장보다 성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여 신규라인 증설에 투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CPP 필름 생산업체들은 공통적으로 현재 공급 과잉 상태로 인해 과당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CPP 업계는 기존 범용 용도보다는 기능성 및 산업재 용도로 시장을 꾸준히 개척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앞으로 업체들은 국내 기업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최소화하고 신제품 및 고부가가치 제품을 통해 품질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독
자
결
점
오
집

월간 포장계는 독자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의 독자컬럼을 모집합니다.

어떠한 의견이라도 좋습니다.

포장인의 독설을 펼칠 지면을 할애하니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필자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월간 포장계 편집실
TEL :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